



2012년 5월 30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김정훈 ☎ 3276-6230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계량분석 | 노근환 ☎ 3276-6226
 파생상품 | 안 혁 ☎ 3276-6272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투자전략

이카루스의 날개를 준비하는 중국

• 채권분석

6월 월보: 일시적인 금리조정에 주의하자

• 계량분석

중국 : 기회인가, 위협인가?

• 이머징마켓 동향

정책 기대 고조, 중화권 증시 큰 폭 상승
 2012 차이나스터디 '十年之計' 결과 보고서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KG모빌리언스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SK텔레콤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반도체, 건설, LIG손해보험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 구 분 | | 05/21(월) | 05/22(화) | 05/23(수) | 05/24(목) | 05/25(금) | 05/29(화) | |
|-------------|------------|----------|----------|----------|----------|----------|----------|---------|
| 유가증권 | 종합주가지수 | 1,799.13 | 1,828.69 | 1,808.62 | 1,814.47 | 1,824.17 | 1,849.91 | |
| | 등락폭 | 16.67 | 29.56 | -20.07 | 5.85 | 9.70 | 25.74 | |
| | 등락종목 | 상승(상한) | 382(7) | 656(8) | 256(9) | 411(4) | 530(4) | 516(4) |
| | | 하락(하한) | 461(9) | 186(8) | 554(3) | 376(0) | 290(3) | 307(3) |
| | ADR | 65.68 | 71.40 | 72.51 | 74.85 | 79.44 | 81.23 | |
| | 이격도 | 10 일 | 95.40 | 97.68 | 97.35 | 98.35 | 99.38 | 101.13 |
| | | 20 일 | 93.17 | 95.06 | 94.40 | 95.07 | 95.93 | 97.60 |
| | 투자심리 | 30 | 30 | 30 | 40 | 50 | 60 | |
| | 거래량 (백만 주) | 409 | 419 | 441 | 402 | 381 | 321 | |
| 거래대금 (십억 원) | 4,214 | 4,800 | 4,150 | 3,482 | 3,486 | 3,699 | | |
| 코스닥 | 코스닥지수 | 448.89 | 461.45 | 455.90 | 455.72 | 462.40 | 470.02 | |
| | 등락폭 | 0.21 | 12.56 | -5.55 | -0.18 | 6.68 | 7.62 | |
| | 등락종목 | 상승(상한) | 427(16) | 842(13) | 294(15) | 504(14) | 631(20) | 615(26) |
| | | 하락(하한) | 517(3) | 128(3) | 647(0) | 413(4) | 298(1) | 329(1) |
| | ADR | 66.60 | 74.87 | 76.15 | 78.89 | 85.60 | 87.47 | |
| | 이격도 | 10 일 | 94.03 | 97.34 | 96.90 | 97.66 | 99.76 | 101.81 |
| | | 20 일 | 93.28 | 96.22 | 95.38 | 95.62 | 97.17 | 98.86 |
| | 투자심리 | 40 | 40 | 40 | 30 | 40 | 50 | |
| | 거래량 (백만 주) | 382 | 428 | 432 | 448 | 446 | 402 | |
| 거래대금 (십억 원) | 1,266 | 1,528 | 1,358 | 1,350 | 1,527 | 1,353 | |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 구 분 | | 개 인 | 외국인 | 기관계 | (증권) | (보험) | (투신) | (사모) | (은행) | (종기금) | 기 타 |
|------|---------|----------|----------|----------|-------|---------|----------|-------|-------|----------|----------|
| 유가증권 | 매수 | 1,779.1 | 855.4 | 883.1 | 116.2 | 165.6 | 356.7 | 52.3 | 31.2 | 161.1 | 214.0 |
| | 매도 | 2,083.3 | 834.3 | 688.8 | 107.3 | 127.5 | 230.7 | 40.5 | 22.6 | 160.3 | 125.3 |
| | 순매수 | -304.1 | 21.1 | 194.3 | 9.0 | 38.1 | 126.1 | 11.8 | 8.6 | 0.8 | 88.7 |
| | 05 월 누계 | 2,325.5 | -3,960.1 | 1,552.7 | -60.9 | 209.8 | 1,037.3 | 36.8 | 44.1 | 285.6 | 81.9 |
| | 12 년 누계 | -2,583.6 | 6,899.3 | -1,480.1 | 462.7 | 1,292.2 | -2,653.1 | 60.9 | 406.1 | -1,048.9 | -2,835.7 |
| 코스닥 | 매수 | 1,268.1 | 48.8 | 40.9 | 9.3 | 4.9 | 15.3 | 2.3 | 1.5 | 7.6 | 10.7 |
| | 매도 | 1,255.0 | 50.2 | 52.8 | 5.6 | 5.6 | 23.6 | 6.3 | 1.4 | 10.2 | 10.5 |
| | 순매수 | 13.1 | -1.4 | -11.9 | 3.7 | -0.8 | -8.3 | -4.1 | 0.1 | -2.6 | 0.2 |
| | 05 월 누계 | -118.4 | -69.1 | 147.4 | 29.4 | 42.1 | 58.5 | -4.8 | -11.1 | 33.3 | 40.1 |
| | 12 년 누계 | 1,082.7 | -38.5 | -639.2 | -68.3 | -12.3 | -404.7 | -27.8 | -50.8 | -75.4 | -404.9 |

이카루스의 날개를 준비하는 중국

| | |
|------------|---------------|
| 5월 월간 밴드 | 1,900-2,050pt |
| 2012 연간 밴드 | 1,650-2,250pt |
| 12MF PER | 8.4배 |
| 12MF PBR | 1.02배 |
| Yield Gap | 8.5%P |

- ▶ 최근 중국의 부양책 속속 등장: 투자 증가, 가전하향, 기차하향
- ▶ 2009년의 부양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예상, 확대된 정부의 역할 기대
- ▶ 이번 부양책은 공격적 대책이라기 보다, 소비와 대외약재의 빈틈 메우기
- ▶ 소재주의 일부 과대 낙폭 만회 기대, 다만 현시점의 알파는 소비에서 찾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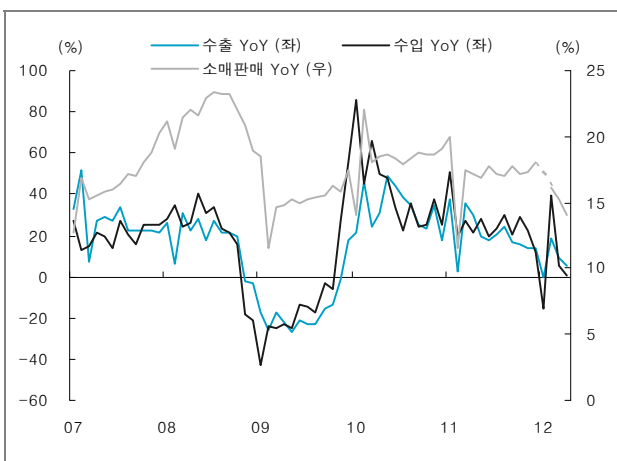
■ 속속 관찰되는 정책대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发改委 발개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이후 투자 심사 기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5월 21일 하루에 심사 비준한 투자안건만 100건이 넘으며 이는 5월 1일~20일 전체의 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기의 하방 압력은 최근 더욱 두드러지게 관찰되고 있다. 4월 들어 수출과 수입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소비 증가율은 지지부진하다. 게다가 산업생산은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신호는 경제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전기소비 추이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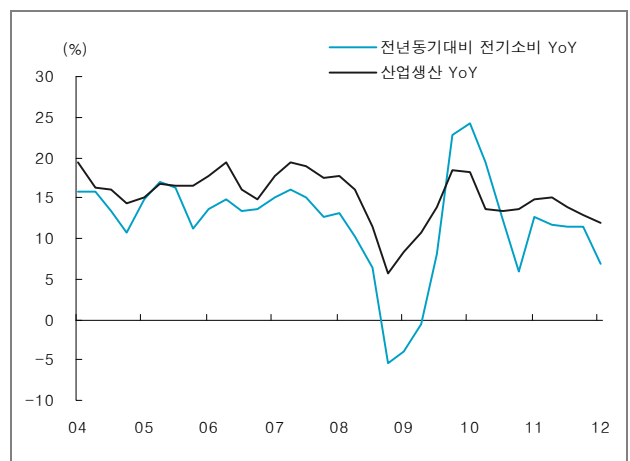
21일 원자바오 총리가 안정적 성장(稳增长)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두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발개위가 투자 승인에 속도를 내면서, 새로운 부양정책에 이미 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림 1] 중국 수출/수입 YoY 및 소매판매 YoY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산업생산 및 전기소비 YoY



자료: CEIC,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이에 앞서 지난 16일 국무원은 향후 1년간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가격의 10%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주시기로 결정하면서 제2차 가전하향(家电下乡)을 실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시작되어 2010년에 종료된 기차하향(汽车下乡) 정책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 재개의 신호, 그리고 소비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통해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 기대감이 한 층 높아진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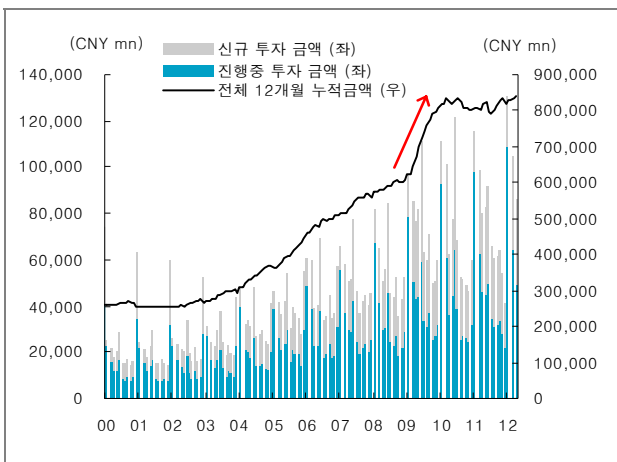
■ 2009년과는 무엇이 다른가

내수 진작을 위한 대규모 부양은 지난 2009년에도 이루어진 바 있다. 리만브라더스 파산 이후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2년간 약 4조 위안대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중앙정부가 투입한 자금은 4조 위안 중에서 약 1.18조 위안이었으며, 나머지는 자금은 지방정부와 은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당시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적정수준의 완화(适度放宽)’였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가장 주요한 방식은 은행 대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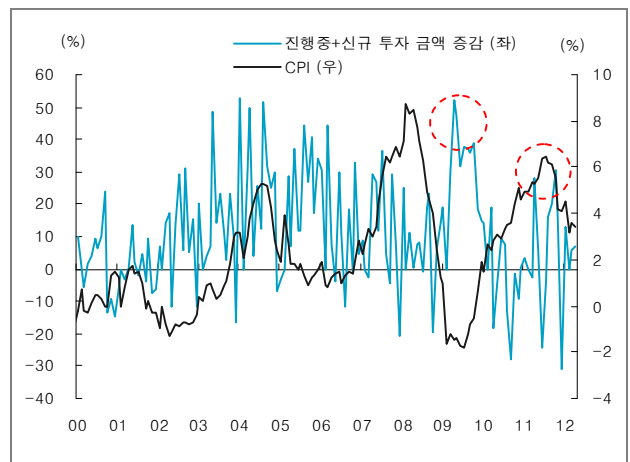
중국경제가 2009년 부양책을 통해 금융위기의 타격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었지만, 그 결과로 나타난 부작용은 또 다른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소비자물가는 최고 6.5%까지 폭등했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중국 주민 연평균 소득의 수십배까지 치솟는 등 심각한 후폭풍을 겪고 있다. 물가와 부동산은 아직까지도 중국 정부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림 3] 중국 월별 신규 투자 및 진행중 투자 금액 추이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진행중+신규 투자 금액 증감 및 CPI 추이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따라서 물가폭등과 부동산 버블의 트라우마가 있는 중국 정부는 이번 부양정책 실시에 있어 규모나 속도,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2009년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은 낮다. 한편 은행의 예대율로 봤을 때도 현재의 수준이 오히려 2009년 부양정책을 실시할 때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할 때, ▲ 자금 투입 규모가 2009년의 4조원 수준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 ▲ 부양정책을 2009년 처럼 은행의 대규모 대출을 통해 소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 ▲ 당국의 감독하에 선별적으로 프로젝트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투자로 소비와 무역의 빈틈을 채운다

중국은 내수가 주도하는 경제모델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부정적 대외 변수는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구조적으로 소비의 비중 증대와 중국인의 소비 패턴 변화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투자로 그 빈틈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

중국은 철도, 수리(水利), 환경보호, 기초에너지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속가능한발전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부문에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2009년의 부양정책과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추가적인 통화정책이 수반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상해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 속도의 하락과 대출수요 감소로 인해 7년만에 처음으로 신규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대출수요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출 행태가 신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과 더불어 기준율 인하 혹은 금리 인하를 통한 실물 경제의 대출수요 진작의 병행을 고려할 것이다.

중국 정부가 하방을 받치기 위한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우려로 크게 타격을 받은 소재 등 업종의 과도한 하락이 일부 만회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양책에 대한 접근 방식이 2009년에는 쇼크의 충격을 막기 위해 자극을 주는 공격적인 ‘대책’이었다면, 이번에는 유럽 재정위기 및 하반기에 기대하는 경기 변곡점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차원의 움직임으로 해석한다.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며, 의사결정도 좀 더 신중해 질 것이다. 결국, 소위 ‘중국 정책 수혜업종’이 현 시점의 기대감만으로 일률적으로 알파를 시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다소 이른감이 있다. 다만 중국의 도시화, 소득 증가, 소비패턴의 선진국화는 지속적인 스토리인만큼 이러한 소비의 관점에서의 ‘알파’ 찾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6월 월보: 일시적인 금리조정에 주의하자

■ 5월 시장동향: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강화 속에 금리하락

5월 채권시장은 약보합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프랑스에 17년 만의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금리는 곧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선물 순매수와 국내기관들이 숏커버로 레벨부담이 커졌지만, 시장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 등을 재료로 강세를 이어갔다. 결국 채권시장은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강화 속에 강보합으로 마감되었다.

■ 일물일가의 관점에서 본 유로존 문제

유로지역 경기침체가 심각해지면서 정책이 긴축에서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이 장기간 존속하기 위해서는 성장뿐 아니라 중심부와 주변부의 내부 불균형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이론적인 해결책인 주변부의 디플레이션 정책은 긴축론자들의 연이은 선거패배로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그 대안인 중심부의 인플레이션 허용도 독일의 반대로 합의가 쉽지 않다. 우리는 6월 유로존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내기도 어렵다고 전망한다.

■ 6월 시장전망: 일시적인 금리조정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6월 채권시장에 악재가 없는 상황이다. 산업생산,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물가도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채권금리가 이미 크게 하락한 반면 한국은행은 6월에도 금리인하를 시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무리한 금리인하 베팅은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당분간 BM 대비 중립 포지션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중기적으로는 금리하락 흐름이 예상되므로 6월 중순 이후 다시 매수 포지션 구축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5월 2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중국 : 기회인가, 위협인가?

■ 기회(시장)로서의 중국, 위협(경쟁자)으로서의 중국

2000년대 초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중국은 한국에게 위협(경쟁자)이라기보다는 기회(시장)로 작용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특히 화학 섹터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이익이 급감하면서 이러한 시각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익 감소의 원인이 경기 침체의 영향인지, 경쟁력 저하 때문인지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익 감소가 단순히 경기 사이클의 문제라면 경기가 호전되면 관련 업종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경쟁력 저하의 문제라면 전혀 다른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

■ Bottom up approach: 업종별 실적과 컨센서스

중국과 한국의 대표기업들의 실적과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 중국, 글로벌 추정치를 비교해 본 결과 업종별로 매우 상이한 모습들이 관찰되었다. 철강과 기계업종은 한국과 중국, 글로벌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익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유, 화학, IT하드웨어(반도체 제외)는 글로벌 경기보다 국내기업의 실적 악화가 훨씬 두드러진 업종이다.

■ 포트폴리오 전략: 삼성전자, 자동차, 경기방어 섹터에 무게

IT하드웨어와 화학업종의 실적 악화에는 경기 침체 이상의 문제가 개재되어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 실적 호전 전망을 뒷받침하려면 수급의 전환, 경쟁력 체고 등과 관련된 분명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소재와 산업재 업종은 후발주자가 적당할 수요시장과 설비로 무장하면 선발주자를 따라잡는 것이 어렵지 않다. 반면에 기술과 트렌드의 변화가 빠른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우위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소재와 산업재 보다는 삼성전자와 자동차, 경기방어 섹터에 비중을 두는 전략을 좀더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5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정책 기대 고조, 중화권 증시 큰 폭 상승

- ▶ 중국 발개위, 5월 21일 100개 건설 프로젝트 승인, 평상시의 2~3배 수준
- ▶ 중국, 2조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 실시 전망 - Credit Suisse
- ▶ 중국 재정부, 고효율 에너지절감형 평판TV와 에어컨 대당 100위안~400위안 보조금 지급

상해지수 이틀 연속 강세
정부 경기부양 기대 확산
금융, 전자, 운송주 급등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이틀 연속 1% 이상 강세를 기록했다. 약보합으로 개장 후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했다. 정부의 인프라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에너지 절감형 가전 보조금에 이어 자동차 보조금 정책이 추가로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고 정부가 지난 2008년의 절반 수준인 2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크레디트스위스의 보고서로 매수심리가 강화됐다. 다음달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CICC의 전망과 지난주 신규대출이 다시 빠르게 증가했다는 소식도 상승 배경이었다. 업종별로는 증권(+3.0%), 보험(+2.9%), 건설(+2.8%), 금속(+2.5%), 전자(+2.3%), 석탄(+2.2%), 항공(+2.1%), 인프라(+2.0%), 기계(+1.7%), 석유화학(+1.7%), 해운(+1.5%), 유통(+1.5%), 부동산개발(+1.2%), 은행(+1.0%) 등 전 업종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종목별로는 하이센스, 흥업증권, 남방항공, 채훙전자, 중국원양, 하이얼 등이 급등했다. 한편 중국중철, 중국철건 등 일부 철도건설 관련주는 차익실현으로 하락했다.

■ 홍콩 시장

홍콩 H지수는 2% 이상 급등하며 전일에 이어 강세를 보였다. 스페인 우려로 약세 출발한 후 미국 소비자표 호조와 중국정부 정책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의 반등세로 마감했다. 5월 초 고점대비 12% 넘게 하락한 상황에서 중국정부의 강한 경기 부양 의지가 확인되면서 홍콩증시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지난주에 크게 조정을 받았던 비철금속, 광업, 에너지 등 자원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나타냈고 운임인상 전망과 국제유가 조정으로 COSCO(+8.3%) 등 해운주가 급등했다. 중국정부가 신규 자동차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고 전기차 폭발 사고로 직전일 급락했던 BYD(+5.8%)도 오후 들어 크게 반등했다. 반면 최근 연일 급등세를 보였던 철도건설 관련주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

홍콩H지수 2% 이상 급등
원자재, 에너지, 해운,
자동차업종 강세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 구분 | 5/29(화) | 전일 대비(%) | 5거래일 전 대비(%) | 1개월 전 대비(%) | 연초 대비(%) |
|------------|-----------|----------|--------------|-------------|----------|
| 중국 상해종합 | 2,389.64 | 1.20 | 0.69 | -0.28 | 8.65 |
| 홍콩 H | 9,858.19 | 2.18 | 1.65 | -11.04 | -0.79 |
| 인도 SENSEX | 16,492.87 | 0.46 | 2.91 | -4.77 | 6.72 |
| 러시아 RTS | 1,291.05 | 1.09 | -2.33 | -19.02 | -6.57 |
| 브라질 보베스파 | 55,212.69 | 1.38 | -2.43 | -10.69 | -2.72 |
| 베트남 VN | 431.44 | -0.93 | -3.68 | -8.93 | 22.73 |
| MSCI 이머징마켓 | 909.42 | 0.81 | -1.07 | -11.36 | -0.76 |

주: 29일 오후 5시 40분 기준

윤향진(hyun@truefriend.com) ☎ 02-3276-6280

2012 차이나스터디 ‘十年之計’ 결과 보고서

■ 요약 및 시사점: 거대한 변화,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실물경기와 실적은 뚜렷하게 악화되고 있으나 2008년 수준보다 양호하며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최근까지 진행된 통화완화, 소비촉진책의 효과는 크지 않다.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업종 경기는 규제, 대외노출도 등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올해 정책의 키워드는 안정이었는데 1분기 성장둔화를 계기로 성장의 하방리스크를 억제해 안정성장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다. 향후 연간 8%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다. 재정지출 및 투자집행이 확대될 것이며 추가적인 통화완화, 규제의 부분적 완화, 소비촉진정책 지속이 예상된다. 경기 및 실적은 2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며 연간 8%대 초반의 성장이 예상된다. 새로운 정부가 안정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다시 9%대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 및 증시에 미칠 중국의 악영향은 제한되겠지만 반대로 강한 반등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낮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은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다. 특히 주요 업종에서 로컬기업의 경쟁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어 한국과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것이다.

균형발전론에 입각한 분배정책 강화와 서부대개발 진행, 도시화에 동반한 부동산 경기의 장기상승, 노령화 및 노동수급 불균형에 대비한 구조조정과 효율성 제고 노력, QFII승인 가속, 위안화 국제화와 상해금융허브 건설 지속 등은 중국의 주요 변화인 동시에 주목할 만한 이슈다.

■ 업종: 소비, 스마트가전, 통신장비, 미디어/문화, 소매유통, 자동차 호조 예상

식품, 의류, 화장품 등 소비재는 소비촉진정책, 소득증대 및 소비패턴 변화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며 백색가전과 평판TV, 디스플레이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에너지절감, 스마트 가전제품의 판매호조가 예상된다. 통신장비는 스마트폰, 3G설비의 급성장이 기대되고 미디어/문화산업은 정부의 지원속에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소매유통은 세부영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호조세가 전망된다. 자동차 경기는 교체수요, 부양책에 힘입어 상승세가 예상되나 소폭에 그칠 것이고 외국브랜드의 강세가 예상된다. 건설장비는 정부투자 확대로 수요가 제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전력장비도 낮지만 성장이 예상된다. 에너지는 가격결정시스템 개혁이 일어났지만 실적이 뚜렷한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철강은 전반적인 부진속에서 과잉문제가 지속되고 구조조정이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부동산은 가격 및 거래량의 추가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장형주택건설, 지방정부의 규제완화로 2008년 같은 급감은 없을 것이다. 금융은 안정적 성장과 리스크관리 및 자본금 확충시도가 지속될 전망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5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종목/테마 | 내 용 |
|--|---|
| SK하이닉스(000660) ▶23,450(+6.59%) | 실적 개선 기대감 및 낙폭 과대 인식으로 견조한 오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기 애플의 아이폰5 출시와 모바일 D램 및 NAND Flash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 엘피다 인수 참여 리스크 및 실적 부진 이슈 등으로 주가는 현재 4월이후 고점 대비 28% 가량 하락한 상태로 가격 메리트 부각 |
| 후성(093370) ▶5,610(+4.66%) | 바스프 전해액 핵심 소재 독점 공급 소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화학 기업인 바스프(BASF)에 전해액 핵심 소재인 LiPF6(육불화인산리튬)을 10년간 독점 공급한다는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 바스프는 중국과 미국 전해액 공장의 공격적인 증설을 계획 중으로 LiPF6 확보를 위해 현재 국내 유일한 LiPF6 생산 기업인 동사의 국내외 증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
| 에스엔유(080000) ▶7,500(+9.81%) | SMD가 동사의 장비를 적용한다는 소식에 급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D(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A3(Flexible OLED)의 thin-film encap 공정에 동사의 장비를 적용한다는 소식에 급등세 - thin-film encap 공정은 유기-무기 적층구조로 유기층 증착에 동사의 장비를 적용할 것이며, 올해 하반기 및 내년 SMD가 flexible OLED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혜 기대 |
| 조선주 | 단기 낙폭 과대 인식 확산 및 해외 수주 모멘텀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해외 수주 소식 등 연이은 해외 수주 모멘텀 및 최근 단기 낙폭 과대 인식 확산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 - 대우조선해양(042660, +6.59%), 삼성중공업(010140, +4.78%), 현대미포조선(010620, +3.98%), 현대중공업(009540, +3.44%) 등 강세 |
| 화학주 | 중국 내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폭과대 인식과 함께 중국 자동차, 가전 분야 내수 부양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 - 금호석유(011780, +7.34%), 카프로(006380, +6.42%), 호남석유(011170, +6.05%), 송원산업(004430, +4.33%), 대한유화(006650, +3.92%), OCI(010060, +3.05%) 등 강세 |
| STX그룹주 |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X그룹이 주채무은행인 KDB산업은행과 31일 재무구조 약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강세 - STX조선해양(067250, +7.80%), STX메탈(071970, +7.21%), STX엔진(077970, +7.14%), STX팬오션(028670, +7.01%), STX(011810, +6.87%) 등 강세 |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KG모빌리언스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 종 목 (코 드) | 현재가 (수익률) | 편입가 (편입일자) | 투자 포인트 |
|---------------------|-------------------|-------------------|--|
| KG모빌리언스 (046440) | 4,680 (+3.1) | 4,540 (5/18) | - 국내 1위의 모바일 결제업체로 모바일 기기 확산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 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실물 고객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으로 고성장세 예상 |
| 인프라웨어 (041020) | 8,400 (-14.6) | 9,840 (5/03) | - 모바일 오피스는 높은 편의성과 호환성을 인정받고 있어 향후 판매할 고객사의 주력 모델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며, 스마트폰 저가형에는 에디팅 기능이 빠진 뷰어 모델로 대응 가능하므로 추가적 매출 확대 가능 - 신규 사업으로 오픈 마켓 및 출판사업에 대한 기대 유효.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 부각 가능성 상 |
| 에스엘 (005850) | 20,900 (+19.1) | 17,550 (4/24) | - 성공적인 고객다변화, LED 램프의 시장 확대.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성장세 가속화 전망 - 안정적인 수주 증가세와 제품믹스 개선 등에 힘입어 수익성 개선 예상 - 전속고객에 대한 높은 매출비중, 높은 경쟁강도 등의 할인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경쟁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 및 자산가치 부각 가능성 상존 |
| LG전자 (066570) | 67,800 (-11.6) | 76,700 (4/17) | - 휴대폰 부문의 경우 상반기에는 1)저가폰 축소, 2)마케팅비용 효율화, 3)비용절감 등을 통해 흑자기조 정착에 초점. 하반기에는 flagship이 기대되는 3G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 수익성 개선 예상. 또한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요인(기술→원가, S/W→H/W) 변화, 선두업체와의 기술적 갭 축소, HTC, Motorola, RIM 등 경쟁업체의 부진 등을 주목할 필요 - TV부문의 경우 일본 TV 업체들의 경쟁력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3D FPR TV를 중심으로 한 제품믹스 개선으로 수익성 개선 예상. PBR이 1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 파트론 (091700) | 13,650 (-1.8) | 13,900 (3/09) | - 삼성전자 갤럭시S2, 갤럭시노트 판매 급증에 따른 카메라 모듈 수요 확대에 의해 동사 매출 성장세 지속 전망 - 진동 모터 및 NFC 안테나 추가 공급 등 디바이스당 ASP 개선에 따른 꾸준한 외형 성장세 유지 예상 -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행진, 전방산업 호조에 따른 이익 개선 모멘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 여력 상존 |
| 현대차 (005380) | 237,500 (+4.9) | 226,500 (2/21) | -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의 구조적인 성장세 지속. 단기적인 실적 부진 우려보다는 질적인 변화를 주목할 필요. 해외 및 국내 공장 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 효과와 함께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개선세 지속 전망 - 브랜드 가치 제고와 디자인 경쟁력 강화 등에 힘입은 품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세를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LG전자, 현대차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SK텔레콤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 편입종목 (코드) | 현재가 (수익률) | 편입가 (편입일자) | 2012년 추정실적 | | | | |
|---|-------------------|-------------------|------------|-------|-------|--------|------|
| | | | 매출액 | 영업이익 | 순이익 | EPS | PER |
| SK텔레콤 (017670) | 123,500 (-0.8) | 124,500 (5/24) | 16,744 | 2,013 | 1,502 | 21,549 | 5.7 |
| - SK플래닛, SK브로드밴드, SK하이닉스 등의 수익 개선으로 자회사 가치 상승 예상 -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와 LTE 경쟁 완화로 하반기 수익성 개선 전망 - 역대 최고 수준인 배당 매력도의 역사적 최저 수준인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주목할 필요 | | | | | | | |
| 일진디스플레이 (020760) | 11,450 (+3.6) | 11,050 (5/24) | 521 | 59 | 56 | 1,801 | 6.4 |
| - 중대형 터치스크린패널 부문에서의 원가 경쟁력과 안정적인 수율 확보로 고객사내 점유율 확대 지속 - 금년 1분기 매출액은 1,180억원(YoY +149%), 영업이익은 130억원(YoY +141%)으로 급증세 시현. 모바일 기기 시장의 급성장세와 고객사의 태블릿 신모델 출시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실적 개선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 | | | | | | | |
| 세코닉스 (053450) | 11,500 (-6.5) | 12,300 (5/10) | 130 | 18 | 14 | 2,025 | 5.7 |
| - 중설효과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부문에서 큰 폭의 이익 성장 예상. 또한 차량용 카메라 탑재수 증가세(기존 1개에서 7~8개로 증가)와 블랙박스용 수요 증가세로 차량용 카메라 렌즈 부문의 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 2분기부터 본격적인 이익 성장세가 예상된다. 여타 휴대폰 부품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는 점 등 감안할 때 추가 상승 여력 상존 | | | | | | | |
| 코텍 (052330) | 10,600 (-1.9) | 10,800 (5/03) | 183 | 23 | 20 | 1,530 | 6.9 |
| - 카지노 시장 회복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매출처 다변화에 성공. 세계 1위 업체인 Smart(세계 시장점유율 47%)에 LCD 전자칠판 독점 납품. 올해 전자칠판 매출 215억원(+75% YoY) 예상 - 작년에 법인세 감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순이익은 정체되나, 안정적인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 | | | | | |
| 넥센타이어 (002350) | 20,750 (+19.6) | 17,350 (4/17) | 1,784 | 182 | 140 | 1,382 | 15.0 |
| - 브랜드 이미지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능력 확장으로 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원자재 투입단가 하락에 힘입어 1분기 영업이익률은 두 자리수대 회복 예상 - 생산능력 확대로 7월부터 Mitsubishi의 Lancer(중형세단)에 OE를 제공할 계획이며, 미국 및 독일 완성차업체 등으로부터의 수주로 해외 OE(Original Equipment) 판매는 13년부터 빠르게 증가할 전망 | | | | | | | |
| NHN (035420) | 226,500 (+1.6) | 223,000 (2/21) | 2,374 | 720 | 533 | 12,634 | 17.9 |
| - 온라인 광고 매출의 고성장과 신작 출시에 따른 게임 부분 매출 성장으로 2012년 매출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할 전망. 모바일에서도 확고하게 높은 검색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모바일 광고와 게임, 일본 포털 사업은 성장동력이 될 전망 -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게임 규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주주의 환원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 | | | | | |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텔레콤, NHN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반도체: 하반기 4대 관전 포인트

■ 1. 메모리 수요: 울트라북 및 Windows 8 시대의 개막

울트라북은 애플 맥북에어와 유사하지만 Windows O/S를 사용하고 맥북에어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강점이다. 하반기 울트라북은 평균 가격 \$950, 판매 1,380만대로 NotePC 판매의 8%를 차지할 전망이다. 울트라북에 채용된 NAND Cache(평균 용량 48GB, SSD 25%, mSATA 75%)는 NAND 수요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Windows 8의 지원에 따른 ARM 기반 AP의 PC 진입, x86 CPU의 태블릿 내 비중 확대로 두 제품의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 2. NAND: 공급 증가 제약으로 수급 개선

삼성전자는 메모리 M/S보다 시스템LSI의 성장을 추구해 2011년 4분기 기흥 14라인에 이어 2012년 2분기에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SAS1을 NAND에서 시스템LSI로 추가 전환한다. 삼성전자의 NAND 웨이퍼 생산량은 2011년 2분기 310Kwpm에서 2012년 3분기 230Kwpm로 감소할 전망이다. 도시바 및 마이크론의 capex 제약까지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NAND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NAND 가격은 2분기에도 하락하지만 3분기 안정 이후 4분기에는 상승할 전망이다.

■ 3. DRAM: 마이크론의 엘피다 인수로 수급 개선

마이크론이 엘피다 인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마이크론은 엘피다 인수에 3천억엔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히로시마 Fab의 가동 유지, 고용 승계 조건 등을 감안하면 향후 경쟁력 회복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단기적으로 엘피다의 생산 조정 및 마이크론의 투자 감소, 중장기적으로 과점화 체제 구축으로 DRAM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 4. 시스템 LSI: TSMC 28nm 공급 부족은 삼성전자에 기회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수요 호조로 TSMC 28nm 공정의 capa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TSMC의 capex 상향 등을 통해 3분기 이후 공급 부족이 해소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32nm HKMG 공정에서 신제품 AP의 양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capa 운용 우선 순위는 파운드리보다 AP 생산이다. 향후 20nm에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더욱 강화해 TSMC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 Top picks: 삼성전자 TP 1,950,000원, 하이닉스 TP 36,000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실적 개선 흐름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판단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3의 판매 호조로 휴대폰의 영업이익률이 3분기까지 20% 이상을 유지하고, 전사 영업이익은 1분기 5.85조원에 이어 2분기 7.1조원, 3분기 8.5조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지속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턴어라운드 이후 우호적인 수급 환경에 따른 메모리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3분기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전망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5월 2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건설: 중동학 개론 3) 다운스트림- 제조업 기반 다지기

■ 올해 발주될 사우디의 3개 다운스트림 프로젝트의 의미

사우디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먼저 자동차 관련산업을 개발해 왔다. 올해 사우디가 발주할 다운스트림 중 ‘페트로라빅2’와 ‘사다라’는 자동차 제조를 위한 플라스틱을, ‘캠야’는 타이어용 고무 제조를 위한 것이다. 사우디는 제조업에 필요한 국내외 생산업체 유치에 ‘RCIP(라빅 산업 공단)’을 개발하고 있다. RCIP에 현재까지 16개 업체를 유치했고 부지의 70%가 채워졌으며 후속인 ‘RCIP 2’를 계획 중이다.

■ 제조업을 향한 사우디의 야망- 이제 완제품 위주의 꾸준한 투자로 변화

중동의 제조업을 향한 의지에는 높은 실업률과 셰일가스의 위협이 있었다. 중동은 셰일가스 기반의 미국 에틸렌/프로필렌 계열 생산 확대에 맞서기보다 에탄가스 기반의 기초/중간제품을 자국 제조업의 소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존에는 수입하던 플라스틱/타이어/섬유 등 완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로 다운스트림 발주 패턴이 변하고 있다. 이 경우 기초제품부터 완제품 제조까지 자국에서 소화하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생산뿐 아니라 판매와 유통 과정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향후 중동의 다운스트림 투자는 폭발적이기보다 완제품 위주로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

■ 지금 중동에게는 제조업 기반인 발전과 정유 투자가 최우선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중동에게 최우선 과제는 제조업 기반을 닦는 일이다. 일례로 최근 발주속도를 내고 있는 사우디 ‘지잔’ 정유플랜트와 발전플랜트는 새로 설립될 ‘지잔’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이 될 프로젝트다. 제조업 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발전소와 발전연료에 대한 투자가 선행될 것이다. 올해와 내년 중동의 석유화학 발주규모는 503억달러인 반면 정유는 987억달러, 발전은 755억달러로 추산된다. 이를 고려해 발전설비에 강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top picks로 유지하며 정유플랜트의 업력이 많은 GS건설에 대해서도 적극적 접근을 권한다. 특히 현대건설과 GS건설의 PBR은 각각 1.6배, 0.9배로 역사적 최저 수준(각 1.4배, 0.7배)에 근접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5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LIG손해보험(002550)

| |
|-------------------|
| 매수(유지) |
| 목표가: 36,000원(유지) |
| 종가(5/25): 24,000원 |

회사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 What's new: FY11에는 정상화되면서 순이익 130% 증가

3분기 순이익은 우리 전망에서 12% 모자라는 1,456억원으로 발표되었다. 일회성 요인들((1)파생상품평가손실 1,300억원, (2)과징금 470억원)로 부진했던 전기에 이어 금기에도 구조조정비용 800억원 등으로 부진했다. 그러나, 4분기에는 회복 요인들이 약 2,700억원에 이른다. 3분기에는 당기순이익이 예상보다 적은 것을 제외하면 주요 지표 들은 예상에 부합하거나 좋은 편으로 평가한다. 4분기 회복을 반영해 FY11 이익 전망을 8% 상향했다.

■ Positives: 변액종신 호조 덕에 보장성 신계약 누적 성장을 9%, 연금보험 판매 꾸준

첫 번째는 3분기 중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가 8.1%(YoY) 성장한 가운데, 보장성 신계약APE가 7.4%(YoY, 누 계 9.3%) 성장해 만족스러운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주력상품은 변액종신보험으로 누계 성장률은 65%에 달한다(반 면, 건강보장상품은 -25%로 부진). 두 번째는 신계약 포트폴리오 중 보장성보험 비중이 높아 경쟁사들에 비해 금기 중 신계약가치 규모 및 수익성이 월등히 우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신계약 APE의 보장성/연금/저축성 구성비가 각각 48%, 46%, 6%로 업계 평균(32%, 35%, 33%)에 비해 보장성 구성비가 높고, 저축성이 낮다. 마지막으로 계열사지분 가치 상승덕에 자기자본이 16조원대에 진입했다. 현재 구조에서 계열지분평가의 중 주주몹으로 배분 되는 비율은 52.0%로 추정된다.

■ Negatives: 회사채/대출/공사채 늘려 재투자수익률 하락 방어했지만 금리가 걱정

3분기 중 재투자수익률은 5.77%로 20bp(YoY) 하락했다. 같은 기간의 지표금리 하락폭(국고 3년 25bp, 국고 10년 80bp)에 비해 양호하다. 최근 5%가 넘는 공시이율 덕에 자금유입이 빨라지고 있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우려에서 동 사는 예외일 수 있다. 그러나, 동사가 재투자수익률 하락속도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회사채/대출 확대 등으로 신용위 험을 짊어진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투자자들이 동사를 비롯한 생보업계에 보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는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는 위험선호 현상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보장성보험의 주력으로 부상한 변액종신 보험의 위험/수익 프로파일과도 일맥상통한다.

■ 결론: FY12 PBR 0.95배에 불과하지만, 시장의 위험선호 출현 필요

상장 후 주가는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PBR 1배의 상징성은 유효하다. 불어난 자본 때문에 FY12의 ROE는 7%에 불 과하겠지만, PBR 0.95배 수준의 주가에 부담은 적다. 장기보험의 성장이 없던 시절의 삼성화재도 7%의 ROE에서도 1배 수준은 유지되었다. 목표가격은 SOP 기반의 PBR, P/EV 배수를 각각 1.5배, 1.3배 적용해 산출했는데, 결산 후 EV를 반영해 변경할 예정이다.

| | 4Q FY11 | | | | 증감률 | | FY12F | |
|--------|---------|-------|-------|------|-----|-----|-------|------|
| | 추정 | 실적 | 차이 | 컨센서스 | QoQ | YoY | 당사 | 컨센서스 |
| 경과보험료 | 1,999 | 1,907 | -4.6% | N/A | 3% | 28% | 7,847 | N/A |
| 보험영업이익 | (37) | (41) | N/A | N/A | N/A | N/A | (161) | N/A |
| 합산비율 | 101.8 | 102.0 | 0.2 | N/A | 0.7 | 0.1 | 102.1 | N/A |
| 투자영업이익 | 129 | 137 | 6.5% | N/A | 32% | 14% | 519 | N/A |
| 당기순이익 | 69 | 62 | -9.9% | 61 | 33% | -5% | 265 | 257 |

*상기 보고서는 2012년 5월 2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 구 분 | | 05/21(월) | 05/22(화) | 05/23(수) | 05/24(목) | 05/25(금) | 05/29(화) | |
|-------------|------------|----------|----------|----------|----------|----------|----------|---------|
| 유가증권 | 종합주가지수 | 1,799.13 | 1,828.69 | 1,808.62 | 1,814.47 | 1,824.17 | 1,849.91 | |
| | 등락폭 | 16.67 | 29.56 | -20.07 | 5.85 | 9.70 | 25.74 | |
| | 등락종목 | 상승(상한) | 382(7) | 656(8) | 256(9) | 411(4) | 530(4) | 516(4) |
| | | 하락(하한) | 461(9) | 186(8) | 554(3) | 376(0) | 290(3) | 307(3) |
| | ADR | 65.68 | 71.40 | 72.51 | 74.85 | 79.44 | 81.23 | |
| | 이격도 | 10 일 | 95.40 | 97.68 | 97.35 | 98.35 | 99.38 | 101.13 |
| | | 20 일 | 93.17 | 95.06 | 94.40 | 95.07 | 95.93 | 97.60 |
| | 투자심리 | 30 | 30 | 30 | 40 | 50 | 60 | |
| | 거래량 (백만 주) | 409 | 419 | 441 | 402 | 381 | 321 | |
| 거래대금 (십억 원) | 4,214 | 4,800 | 4,150 | 3,482 | 3,486 | 3,699 | | |
| 코스닥 | 코스닥지수 | 448.89 | 461.45 | 455.90 | 455.72 | 462.40 | 470.02 | |
| | 등락폭 | 0.21 | 12.56 | -5.55 | -0.18 | 6.68 | 7.62 | |
| | 등락종목 | 상승(상한) | 427(16) | 842(13) | 294(15) | 504(14) | 631(20) | 615(26) |
| | | 하락(하한) | 517(3) | 128(3) | 647(0) | 413(4) | 298(1) | 329(1) |
| | ADR | 66.60 | 74.87 | 76.15 | 78.89 | 85.60 | 87.47 | |
| | 이격도 | 10 일 | 94.03 | 97.34 | 96.90 | 97.66 | 99.76 | 101.81 |
| | | 20 일 | 93.28 | 96.22 | 95.38 | 95.62 | 97.17 | 98.86 |
| | 투자심리 | 40 | 40 | 40 | 30 | 40 | 50 | |
| | 거래량 (백만 주) | 382 | 428 | 432 | 448 | 446 | 402 | |
| 거래대금 (십억 원) | 1,266 | 1,528 | 1,358 | 1,350 | 1,527 | 1,353 | |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 구 분 | 개 인 | 외국인 | 기관계 | (증권) | (보험) | (투신) | (사모) | (은행) | (종기금) | 기 타 | |
|------|---------|----------------|-----------------|----------------|--------------|--------------|----------------|-------------|--------------|--------------|-------------|
| 유가증권 | 매수 | 1,779.1 | 855.4 | 883.1 | 116.2 | 165.6 | 356.7 | 52.3 | 31.2 | 161.1 | 214.0 |
| | 매도 | 2,083.3 | 834.3 | 688.8 | 107.3 | 127.5 | 230.7 | 40.5 | 22.6 | 160.3 | 125.3 |
| | 순매수 | -304.1 | 21.1 | 194.3 | 9.0 | 38.1 | 126.1 | 11.8 | 8.6 | 0.8 | 88.7 |
| | 05 월 누계 | 2,325.5 | -3,960.1 | 1,552.7 | -60.9 | 209.8 | 1,037.3 | 36.8 | 44.1 | 285.6 | 81.9 |
| | 12 년 누계 | -2,583.6 | 6,899.3 | -1,480.1 | 462.7 | 1,292.2 | -2,653.1 | 60.9 | 406.1 | -1,048.9 | -2,835.7 |
| 코스닥 | 매수 | 1,268.1 | 48.8 | 40.9 | 9.3 | 4.9 | 15.3 | 2.3 | 1.5 | 7.6 | 10.7 |
| | 매도 | 1,255.0 | 50.2 | 52.8 | 5.6 | 5.6 | 23.6 | 6.3 | 1.4 | 10.2 | 10.5 |
| | 순매수 | 13.1 | -1.4 | -11.9 | 3.7 | -0.8 | -8.3 | -4.1 | 0.1 | -2.6 | 0.2 |
| | 05 월 누계 | -118.4 | -69.1 | 147.4 | 29.4 | 42.1 | 58.5 | -4.8 | -11.1 | 33.3 | 40.1 |
| | 12 년 누계 | 1,082.7 | -38.5 | -639.2 | -68.3 | -12.3 | -404.7 | -27.8 | -50.8 | -75.4 | -404.9 |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투 신 | |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운수장비 | 56,389 | 보험 | -13,509 |
| 전기,전자 | 32,347 | 기계 | -4,983 |
| 화학 | 29,748 | 통신업 | -4,018 |
| SK하이닉스 | 36,211 | SK텔레콤 | -7,365 |
| 현대중공업 | 20,244 | 삼성화재 | -7,203 |
| 호남석유 | 20,212 | 엔씨소프트 | -4,425 |
| POSCO | 10,084 | 삼성테크윈 | -4,175 |
| 삼성중공업 | 9,773 | 두산인프라코어 | -3,743 |

| 연 기 금 | |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화학 | 14,680 | 전기,전자 | -29,400 |
| 운수장비 | 11,152 | 서비스업 | -8,930 |
| 금융업 | 7,405 | 통신업 | -8,401 |
| 현대중공업 | 12,124 | 삼성전자 | -24,965 |
| LG화학 | 8,067 | SK텔레콤 | -6,885 |
| 호남석유 | 4,476 | 한국전력 | -4,841 |
| 우리금융 | 4,204 | 삼성전기 | -4,620 |
| SK하이닉스 | 4,102 | POSCO | -3,871 |

(체결기준: 백만원)

| 은 행 | |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전기,전자 | 3,834 | 운수장비 | -1,567 |
| 화학 | 1,711 | 전기가스업 | -364 |
| 철강및금속 | 1,394 | 금융업 | -229 |
| SK하이닉스 | 2,453 | 풍산 | -1,340 |
| POSCO | 1,241 | 한화케미칼 | -962 |
| 삼성전자 | 1,230 | SK케미칼 | -782 |
| LG화학 | 1,130 | LG | -705 |
| 현대제철 | 1,034 | 현대모비스 | -650 |

| 보 험 | |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화학 | 11,137 | 기계 | -4,570 |
| 운수장비 | 10,039 | 건설업 | -2,428 |
| 전기,전자 | 7,023 | 섬유,의복 | -1,044 |
| SK하이닉스 | 7,954 | 두산인프라코어 | -2,706 |
| SK이노베이션 | 5,753 | LG생활건강 | -2,498 |
| LG화학 | 4,815 | 삼성전기 | -2,325 |
| 대우조선해양 | 4,080 | LG전자 | -2,256 |
| 금호석유 | 4,028 | 현대건설 | -2,235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기 관 | |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운수장비 | 72,545 | 통신업 | -10,369 |
| 화학 | 54,746 | 보험 | -8,594 |
| 전기,전자 | 24,002 | 전기가스업 | -6,542 |
| SK하이닉스 | 47,540 | 삼성전자 | -15,111 |
| 현대중공업 | 32,671 | SK텔레콤 | -13,879 |
| 호남석유 | 21,799 | 엔씨소프트 | -6,433 |
| LG화학 | 19,484 | LG생활건강 | -4,872 |
| 대우조선해양 | 16,445 | 삼성SDI | -4,326 |
| POSCO | 13,428 | 한국전력 | -4,061 |
| KB금융 | 12,725 | 삼성테크윈 | -4,026 |
| SK이노베이션 | 12,420 | 현대건설 | -4,013 |
| 삼성중공업 | 11,732 | 삼성화재 | -4,003 |
| 금호석유 | 11,231 | 코스맥스 | -3,576 |

| 외 국 인 | |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운수장비 | 39,509 | 보험 | -20,660 |
| 화학 | 32,018 | 철강및금속 | -17,311 |
| 전기,전자 | 24,734 | 서비스업 | -13,571 |
| 호남석유 | 20,744 | 삼성화재 | -24,260 |
| 삼성전자 | 20,559 | KB금융 | -17,075 |
| 기아차 | 16,639 | POSCO | -13,296 |
| 엔씨소프트 | 12,182 | 현대중공업 | -9,772 |
| 만도 | 10,627 | NHN | -9,518 |
| 현대모비스 | 9,806 | 현대제철 | -7,681 |
| SK텔레콤 | 8,923 | CJ제일제당 | -7,670 |
| 삼성테크윈 | 7,359 | KT | -6,472 |
| 삼성중공업 | 7,143 | S-Oil | -6,045 |
| LG화학 | 7,097 | SK | -5,634 |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투 신 | | 연 기 금 | |
|--------|-------|--------|--------|
| 순 매 수 | 순 매 도 | 순 매 수 | 순 매 도 |
| 디지털컨텐츠 | 2,305 | 반도체 | -3,978 |
| 금속 | 1,016 | 인터넷 | -3,476 |
| 전문기술 | 671 | 제약 | -1,217 |
| JCE | 1,305 | 다음 | -3,476 |
| 게임빌 | 617 | 이오테크닉스 | -2,222 |
| 태광 | 584 | 에스엠 | -1,313 |
| CJ E&M | 492 | 셀트리온 | -1,200 |
| 파트론 | 410 | 원익IPS | -1,077 |

| | | | |
|----------|-------|---------|--------|
| 반도체 | 1,256 | 디지털컨텐츠 | -1,276 |
| 오락,문화 | 1,015 | 출판,매체복제 | -1,104 |
| 의료,정밀기기 | 400 | 사업지원 | -769 |
| 심텍 | 1,309 | 에스엠 | -1,190 |
| 파라다이스 | 768 | JCE | -947 |
| OCI머티리얼즈 | 591 | 하나투어 | -769 |
| 오스템임플란트 | 400 | 툽텍 | -536 |
| 에스에프에이 | 300 | 셀트리온 | -492 |

(체결기준: 백만원)

| 은 행 | | 보 험 | |
|---------|-------|----------|-------|
| 순 매 수 | 순 매 도 | 순 매 수 | 순 매 도 |
| 오락,문화 | 311 | 제약 | -267 |
| 운송장비,부품 | 188 | IT부품 | -250 |
| 금속 | 188 | 통신장비 | -104 |
| 파라다이스 | 311 | 셀트리온 | -316 |
| 성우하이텍 | 188 | OCI머티리얼즈 | -159 |
| 태광 | 179 | 디지털시스템 | -126 |
| 매일유업 | 117 | 미래나노텍 | -119 |
| 원익IPS | 107 | 파트론 | -109 |

| | | | |
|--------|-----|---------|------|
| 반도체 | 589 | 출판,매체복제 | -787 |
| 소프트웨어 | 403 | 제약 | -602 |
| 전문기술 | 389 | 오락,문화 | -242 |
| 네패스 | 758 | 에스엠 | -787 |
| 이녹스 | 558 | 메디포스트 | -397 |
| CJ E&M | 389 | 셀트리온 | -393 |
| 하나투어 | 383 | 파트론 | -352 |
| 게임빌 | 245 | JCE | -254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기 관 | | 외 국 인 | |
|----------|-------|---------|--------|
| 순 매 수 | 순 매 도 | 순 매 수 | 순 매 도 |
| 금속 | 1,420 | 반도체 | -4,422 |
| 디지털컨텐츠 | 781 | 인터넷 | -3,570 |
| 제약 | 765 | 출판,매체복제 | -3,159 |
| 태광 | 952 | 다음 | -3,570 |
| 셀트리온 | 834 | 에스엠 | -3,394 |
| 파라다이스 | 726 | 이오테크닉스 | -2,563 |
| 코나아이 | 680 | 원익IPS | -1,936 |
| 컴투스 | 605 | 에스에프에이 | -888 |
| OCI머티리얼즈 | 548 | AP시스템 | -860 |
| 심텍 | 485 | 툽텍 | -723 |
| 한국사이버결제 | 432 | 위메이드 | -535 |
| 비에이치 | 419 | 덕산하이메탈 | -518 |
| 성우하이텍 | 410 | 골프존 | -509 |

| | | | |
|---------|-------|---------|--------|
| 화학 | 3,034 | 제약 | -2,991 |
| IT부품 | 1,442 | 금속 | -2,372 |
| 반도체 | 1,204 | 소프트웨어 | -1,333 |
| 에이블씨엔씨 | 2,513 | 셀트리온 | -2,039 |
| 파트론 | 1,072 | 안랩 | -1,859 |
| 네오위즈게임즈 | 793 | 성광벤드 | -1,521 |
| AP시스템 | 774 | 크루셜텍 | -1,195 |
| CJ E&M | 657 | 태광 | -1,159 |
| 실리콘웍스 | 653 | 에스엠 | -997 |
| 한글과컴퓨터 | 470 | 메디포스트 | -853 |
| 바이오랜드 | 442 | 포스코 ICT | -692 |
| 인터플렉스 | 440 | 성우하이텍 | -645 |
| 크로바하이텍 | 404 | 유진테크 | -537 |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 KOSPI | | | |
|--------|------|----------|------|
| 기 | 관 | 외 | 국 인 |
| 신도리코 | 40 일 | 에스원 | 34 일 |
| 현대백화점 | 23 일 | LG이노텍 | 8 일 |
| 코오롱 | 16 일 | 삼광유리 | 6 일 |
| 아모레G | 13 일 | 대덕GDS | 5 일 |
| 고려아연 | 9 일 | 엔씨소프트 | 5 일 |
| SKC | 9 일 | 한진중공업홀딩스 | 4 일 |
| LG화학 | 9 일 | 한화케미칼 | 4 일 |
| 아세아시멘트 | 7 일 | 삼성테크윈 | 4 일 |

| KOSDAQ | | | |
|----------|------|--------|------|
| 기 | 관 | 외 | 국 인 |
| 이트레이드증권 | 41 일 | 한국토지신탁 | 11 일 |
| 동진씨미켄 | 7 일 | STS반도체 | 6 일 |
| 동국산업 | 4 일 | 이오테크닉스 | 5 일 |
| CJ오쇼핑 | 4 일 | 코미팜 | 5 일 |
| OCI머티리얼즈 | 4 일 | 큐렉소 | 5 일 |
| 씨젠 | 4 일 | 엘앤에프 | 5 일 |
| 성우하이텍 | 3 일 | 실리콘웍스 | 5 일 |
| 동서 | 3 일 | 포스코컴텍 | 4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KOSPI | | | |
|---------|---------|---------|--------|
| 기 | 관 | 외 | 국 인 |
| LG화학 | 113,415 | 호남석유 | 47,310 |
| KB금융 | 61,727 | 기아차 | 31,551 |
| 현대중공업 | 57,455 | 엔씨소프트 | 28,796 |
| 삼성전자 | 48,497 | SK텔레콤 | 22,838 |
| 현대건설 | 45,048 | 두산인프라코어 | 16,762 |
| 삼성생명 | 41,534 | 만도 | 11,802 |
| 삼성전기 | 40,981 | LG전자 | 11,754 |
| 두산인프라코어 | 29,687 | OCI | 9,179 |

| KOSDAQ | | | |
|----------|-------|----------|--------|
| 기 | 관 | 외 | 국 인 |
| 게임빌 | 4,687 | 셀트리온 | 10,256 |
| 컴투스 | 4,051 | 에이블씨앤씨 | 6,368 |
| JCE | 3,055 | AP시스템 | 3,619 |
| 셀트리온 | 2,782 | 실리콘웍스 | 3,482 |
| 파라다이스 | 2,418 | 인피니트헬스케어 | 2,103 |
| OCI머티리얼즈 | 2,256 | CJ오쇼핑 | 1,985 |
| 바이오랜드 | 2,200 | 이오테크닉스 | 1,521 |
| 한국사이버결제 | 1,610 | 파트론 | 1,491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KOSPI | | | |
|--------|--------|--------|---------|
| 종 | 목 | 기 | 관 |
| 운수장비 | 72,545 | 39,509 | 112,054 |
| 화학 | 54,746 | 32,018 | 86,765 |
| 전기,전자 | 24,002 | 24,734 | 48,736 |
| SK하이닉스 | 47,540 | 1,702 | 49,241 |
| 호남석유 | 21,799 | 20,744 | 42,543 |
| LG화학 | 19,484 | 7,097 | 26,582 |
| 삼성중공업 | 11,732 | 7,143 | 18,875 |
| 기아차 | 1,166 | 16,639 | 17,805 |
| 현대모비스 | 727 | 9,806 | 10,533 |
| 현대차 | 91 | 5,696 | 5,787 |
| GS건설 | 4,588 | 1,028 | 5,616 |
| 우리금융 | 1,070 | 3,754 | 4,824 |
| 에스엘 | 3,561 | 62 | 3,623 |

| KOSDAQ | | | |
|---------|-----|-------|-------|
| 종 | 목 | 기 | 관 |
| 전문기술 | 543 | 616 | 1,158 |
| 디지털컨텐츠 | 781 | 232 | 1,014 |
| 방송서비스 | 218 | 567 | 785 |
| 파트론 | 279 | 1,072 | 1,350 |
| 실리콘웍스 | 389 | 653 | 1,042 |
| 네오위즈게임즈 | 0 | 793 | 793 |
| CJ E&M | 115 | 657 | 772 |
| CJ오쇼핑 | 266 | 362 | 628 |
| 심택 | 485 | 121 | 606 |
| 씨젠 | 269 | 216 | 485 |
| 비에이치 | 419 | 31 | 450 |
| 오스팀임플란트 | 400 | 13 | 414 |
| 아라이콤 | 231 | 37 | 268 |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 KOSPI | | | |
|----------|------|--------|------|
| 종목 | 기관 | 외국인 | 연속일수 |
| 효성 | 10 일 | 대한항공 | 22 일 |
| 진로 | 8 일 | 신도리코 | 16 일 |
| LG이노텍 | 8 일 | 현대글로비스 | 16 일 |
| 성진지소텍 | 6 일 | CJ제일제당 | 16 일 |
| 한진중공업홀딩스 | 5 일 | 한일시멘트 | 14 일 |
| 한솔테크닉스 | 5 일 | 경방 | 13 일 |
| 일진전기 | 5 일 | 대한제분 | 13 일 |
| 삼성물산 | 4 일 | 아모레G | 13 일 |

| KOSDAQ | | | |
|---------|------|--------|------|
| 종목 | 기관 | 외국인 | 연속일수 |
| 현진소재 | 10 일 | 테크노세미켄 | 13 일 |
| 다산네트웍스 | 7 일 | 동서 | 8 일 |
| STS반도체 | 6 일 | 시그네틱스 | 7 일 |
| 메디포스트 | 6 일 | 에스에프에이 | 6 일 |
| 네오위즈게임즈 | 6 일 | 성광벤드 | 5 일 |
| 다음 | 5 일 | 성우하이텍 | 5 일 |
| 하이록코리아 | 4 일 | SDN | 5 일 |
| KCC건설 | 4 일 | 크루셜텍 | 5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KOSPI | | | |
|---------|---------|--------|----------|
| 종목 | 기관 | 외국인 | 누적액 |
| 현대모비스 | -62,690 | 삼성전자 | -116,601 |
| 만도 | -42,679 | SK하이닉스 | -81,244 |
| SK텔레콤 | -34,455 | KB금융 | -65,011 |
| LG디스플레이 | -33,490 | 삼성화재 | -53,854 |
| 기아차 | -26,381 | 현대차 | -43,104 |
| 대우조선해양 | -22,655 | 현대백화점 | -40,013 |
| 엔씨소프트 | -21,455 | NHN | -38,076 |
| KT | -12,851 | 현대중공업 | -37,734 |

| KOSDAQ | | | |
|--------|---------|-------|--------|
| 종목 | 기관 | 외국인 | 누적액 |
| 위메이드 | -11,560 | 성우하이텍 | -6,624 |
| 다음 | -7,539 | 컴투스 | -5,703 |
| 에스엠 | -4,761 | 크루셜텍 | -4,959 |
| 씨젠 | -4,164 | 성광벤드 | -3,430 |
| CJ E&M | -4,114 | 파라다이스 | -3,378 |
| 심텍 | -3,283 | 안랩 | -3,373 |
| 슈프리마 | -2,678 | 태광 | -2,637 |
| 이오테크닉스 | -2,366 | 솔브레인 | -2,430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KOSPI | | | |
|---------|--------|---------|---------|
| 종목 | 기관 | 외국인 | 합계 |
| 보험 | -8,594 | -20,660 | -29,254 |
| 섬유,의복 | -2,529 | -1,809 | -4,338 |
| 음식료품 | -301 | -3,310 | -3,610 |
| 삼성화재 | -4,003 | -24,260 | -28,263 |
| LG전자 | -3,249 | -2,644 | -5,894 |
| 한국타이어 | -1,652 | -3,112 | -4,763 |
| 현대건설 | -4,013 | -85 | -4,097 |
| 제일기획 | -752 | -3,211 | -3,963 |
| 삼성엔지니어링 | -1,649 | -719 | -2,368 |
| 베이직하우스 | -1,188 | -743 | -1,931 |
| 대한항공 | -558 | -1,227 | -1,785 |
| 코오롱인더 | -1,202 | -263 | -1,465 |
| 대한해운 | -3 | -1,450 | -1,453 |

| KOSDAQ | | | |
|---------|--------|--------|--------|
| 종목 | 기관 | 외국인 | 합계 |
| 출판,매체복제 | -3,159 | -1,003 | -4,163 |
| 기계,장비 | -2,089 | -421 | -2,510 |
| 음식료,담배 | -442 | -26 | -469 |
| 에스엠 | -3,394 | -997 | -4,391 |
| 메디포스트 | -372 | -853 | -1,225 |
| 에스에프에이 | -888 | -92 | -980 |
| 위메이드 | -535 | -271 | -806 |
| 포스코 ICT | -34 | -692 | -726 |
| 서울반도체 | -422 | -120 | -542 |
| KH바텍 | -391 | -44 | -435 |
| 하림 | -202 | -51 | -253 |
| 유비벨룩스 | -247 | -6 | -252 |
| 모두투어 | -110 | -138 | -248 |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 KOSPI | | |
|---------|-----|-------|
| 종 목 | 주 수 | 금 액 |
| LG화학 | 26 | 7,478 |
| 삼성전자 | 5 | 5,586 |
| 기아차 | 73 | 5,560 |
| 오리온 | 6 | 5,412 |
| 두산인프라코어 | 213 | 4,218 |
| 호남석유 | 16 | 3,976 |
| 대우인터내셔널 | 134 | 3,927 |
| LG디스플레이 | 172 | 3,458 |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KOSDAQ | | |
|---------|-----|-------|
| 종 목 | 주 수 | 금 액 |
| 에스에프에이 | 23 | 1,243 |
| 다음 | 5 | 529 |
| 원익IPS | 62 | 469 |
| 대창메탈 | 61 | 310 |
| 알에프텍 | 29 | 278 |
| 네오위즈인터넷 | 15 | 254 |
| 넥센테크 | 52 | 222 |
| 나우콤 | 19 | 169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 KOSPI | | |
|-------|--------|-----------|
| 종 목 | 주 수 | 금 액 |
| 삼성전자 | 3,025 | 3,705,297 |
| POSCO | 7,680 | 2,734,045 |
| LG전자 | 39,492 | 2,638,043 |
| OCI | 7,848 | 1,545,977 |
| 현대차 | 4,830 | 1,125,321 |
| 현대중공업 | 3,008 | 786,673 |
| 삼성전기 | 7,082 | 725,910 |
| LG화학 | 2,425 | 709,306 |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KOSDAQ | | |
|----------|--------|---------|
| 종 목 | 주 수 | 금 액 |
| 셀트리온 | 10,348 | 313,542 |
| 서울반도체 | 6,029 | 135,041 |
| 덕산하이메탈 | 2,223 | 51,460 |
| 원익IPS | 6,588 | 48,621 |
| 네오위즈게임즈 | 1,427 | 38,948 |
| 안랩 | 261 | 33,165 |
| 차바이오앤 | 3,476 | 28,534 |
| OCI머티리얼즈 | 551 | 24,738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 KOSPI | | | |
|---------|-------|--------|--------|
| 순 증 | | 순 감 | |
| 기계 | 1,737 | 운수장비 | -2,333 |
| 전기,전자 | 1,254 | 철강및금속 | -1,123 |
| 서비스업 | 1,144 | 화학 | -926 |
| 우리금융 | 2,467 | 기아차 | -1,042 |
| LG전자 | 2,123 | 삼성중공업 | -1,004 |
| 한화증권 | 800 | 한화케미칼 | -986 |
| 한라공조 | 718 | STX팬오션 | -964 |
| GS | 687 | KB금융 | -961 |
| 한진해운 | 536 | 신한지주 | -956 |
| STX엔진 | 507 | 한국전력 | -824 |
| 두산인프라코어 | 495 | 동국제강 | -708 |
| 외환은행 | 435 | 대우조선해양 | -633 |
| 넥센타이어 | 389 | LG이노텍 | -540 |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KOSDAQ | | | |
|----------|-----|---------|--------|
| 순 증 | | 순 감 | |
| IT부품 | 191 | 제약 | -1,740 |
| 반도체 | 167 | 오락,문화 | -252 |
| 전문건설 | 47 | 디지털컨텐츠 | -101 |
| 루멘스 | 95 | 셀트리온 | -1,737 |
| 네페이스 | 89 | 파라다이스 | -252 |
| 차바이오앤 | 68 | 주성엔지니어링 | -154 |
| 캠트로닉스 | 58 | 네오위즈게임즈 | -87 |
| OCI머티리얼즈 | 52 | 컴투스 | -77 |
| 덕산하이메탈 | 51 | 오성엘에스티 | -71 |
| 게임빌 | 48 | 네오위즈 | -70 |
| 승화명품건설 | 47 | 서울반도체 | -66 |
| 이오테크닉스 | 40 | 리드코프 | -60 |
| 알에프세미 | 39 | 이노칩 | -36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 구 분 | 연간 누계 | 월간 누계 | 5일간 누계 | 05/22(화) | 05/23(수) | 05/24(목) | 05/25(금) | 05/29(화) |
|-------|----------|----------|--------|----------|----------|----------|----------|----------|
| 외국인 | 6,899.3 | -3,960.1 | -736.5 | -6.0 | -382.5 | -233.7 | -137.7 | 21.1 |
| 기관계 | -1,480.1 | 1,552.7 | 681.5 | -51.8 | 178.2 | 145.9 | 216.9 | 194.3 |
| (투신) | -2,653.1 | 1,037.3 | 475.4 | 49.8 | 109.7 | 73.0 | 117.3 | 126.1 |
| (연기금) | -1,063.7 | 285.0 | 53.2 | -47.8 | 34.9 | 34.8 | 35.4 | -4.2 |
| (은행) | 406.1 | 44.1 | -33.8 | -30.1 | -6.3 | -10.4 | 4.3 | 8.6 |
| (보험) | 1,292.2 | 209.8 | 120.7 | 15.4 | -2.0 | 14.0 | 55.3 | 38.1 |
| 개인 | -2,583.6 | 2,325.5 | -69.8 | 109.5 | 168.0 | 4.1 | -47.1 | -304.1 |
| 기타 | -2,835.7 | 81.9 | 124.8 | -51.7 | 36.3 | 83.7 | -32.1 | 88.7 |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05/21(월) | 05/22(화) | 05/23(수) | 05/24(목) | 05/25(금) |
|----------|----------|----------|----------|----------|----------|----------|----------|----------|
| KOSPI | 1,682.77 | 2,051.00 | 1,825.74 | 1,799.13 | 1,828.69 | 1,808.62 | 1,814.47 | 1,824.17 |
| 고객예탁금 | 12072.0 | 14068.5 | 17680.2 | 17888.8 | 17424.5 | 17337.7 | 17168.9 | 16708.7 |
| (증감액) | 2735.7 | 1996.5 | 3611.7 | 318.8 | -464.3 | -86.8 | -168.8 | -460.2 |
| (회전율) | 52.6 | 51.5 | 34.2 | 31.1 | 37.3 | 32.2 | 29.0 | 30.7 |
| 실질예탁금 증감 | -292.5 | -3502.6 | 3775.5 | 134.5 | -55.2 | 326.6 | 5.6 | -238.0 |
| 신용잔고 | 4359.5 | 5938.3 | 4476.3 | 4461.1 | 4374.5 | 4343.1 | 4308.7 | 4265.6 |
| 미수금 | 240.2 | 192.3 | 187.7 | 542.3 | 483.1 | 201.9 | 158.1 | 159.3 |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 구 분 | 설정 잔액 | 연간 누계 | 월간 누계 | 05/21(월) | 05/22(화) | 05/23(수) | 05/24(목) | 05/25(금) |
|-----------|--------|--------|-------|----------|----------|----------|----------|----------|
| 전체 주식형 | 97,694 | -5,736 | 1,134 | 38 | 180 | -9 | 65 | 55 |
| (ex. ETF) | | -6,356 | 862 | 64 | 87 | 52 | 39 | 24 |
| 국내 주식형 | 68,233 | -4,236 | 1,220 | 43 | 192 | -10 | 7 | 62 |
| (ex. ETF) | | -4,855 | 954 | 69 | 99 | 58 | -19 | 30 |
| 해외 주식형 | 29,460 | -1,501 | -86 | -6 | -12 | 0 | 58 | -7 |
| (ex. ETF) | | -1,501 | -92 | -6 | -12 | -6 | 58 | -7 |
| 주식 혼합형 | 11,272 | -783 | -240 | -108 | -4 | -88 | -34 | -21 |
| 채권 혼합형 | 18,820 | 326 | 218 | 7 | 1 | -13 | -5 | 7 |
| 채권형 | 45,779 | -649 | -627 | 326 | -193 | -156 | -89 | -194 |
| MMF | 71,376 | 17,673 | 7,463 | -857 | -626 | -89 | -721 | -1,198 |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국 가 | 연간 누계 | 월간 누계 | 5일간 누계 | 05/22(화) | 05/23(수) | 05/24(목) | 05/25(금) | 05/29(화) |
|-------|-------|-------|--------|----------|----------|----------|----------|----------|
| 한 국 | 6,205 | 5,509 | -612 | -5 | -324 | -198 | -114 | 25 |
| 대 만 | 482 | 1,717 | -514 | -98 | -275 | -46 | -133 | -12 |
| 인 도 | 8,521 | 2,183 | -131 | -40 | -57 | - | -65 | - |
| 인도네시아 | 584 | 271 | -225 | -17 | -21 | -56 | -103 | - |
| 태국 | 2,207 | 96 | -215 | -5 | -38 | -75 | -49 | - |
| 남아공 | -574 | -851 | -120 | -62 | 1 | -33 | -87 | - |
| 필리핀 | 765 | 366 | 4 | -1 | 2 | -3 | 7 | -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 구 분 | 2011년 | 05/21(월) | 05/22(화) | 05/23(수) | 05/24(목) | 05/25(금) | 05/29(화) |
|-----------------------|----------|----------|----------|----------|----------|----------|----------|
| 회사채 (AA-) | 4.21 | 3.98 | 3.97 | 3.96 | 3.95 | 3.95 | 3.96 |
| 회사채 (BBB-) | 10.01 | 9.60 | 9.59 | 9.59 | 9.59 | 9.59 | 9.59 |
| 국고채 (3년) | 3.34 | 3.37 | 3.36 | 3.36 | 3.35 | 3.35 | 3.36 |
| 국고채 (5년) | 3.46 | 3.49 | 3.49 | 3.48 | 3.47 | 3.47 | 3.48 |
| 국고채 (10년) | 3.79 | 3.74 | 3.74 | 3.73 | 3.73 | 3.73 | 3.74 |
| 미 국채 (10년) | 1.88 | 1.74 | 1.77 | 1.73 | 1.78 | 1.74 | - |
| 일 국채 (10년) | 0.99 | 0.86 | 0.86 | 0.87 | 0.87 | 0.89 | - |
| 원/달러 | 1,151.80 | 1,168.90 | 1,163.20 | 1,172.90 | 1,180.50 | 1,185.50 | 1,174.80 |
| 원/엔 | 1,492.00 | 1,473.00 | 1,455.00 | 1,477.00 | 1,485.65 | 1,489.13 | 1,477.92 |
| 엔/달러 | 77.24 | 79.36 | 79.94 | 79.44 | 79.46 | 79.61 | 79.49 |
| 달러/유로 | 1.29 | 1.27 | 1.27 | 1.25 | 1.26 | 1.25 | 1.25 |
| DDR3 1Gb (1333MHz) | 0.64 | 0.70 | 0.70 | 0.70 | 0.70 | 0.70 | - |
| NAND Flash 16Gb (MLC) | 2.81 | 2.12 | 2.15 | 2.13 | 2.12 | 2.13 | - |
| CRB 지수 | 305.30 | 289.80 | 286.50 | 281.44 | 281.92 | 281.95 | - |
| LME 지수 | 3,306.0 | 3,330.5 | 3,327.9 | 3,260.4 | 3,293.5 | 3,298.9 | - |
| BDI | 1,738 | 1,141 | 1,141 | 1,100 | 1,058 | 1,034 | - |
| 유가 (WTI, 달러/배럴) | 98.83 | 92.57 | 91.66 | 89.60 | 90.41 | 90.66 | - |
| 금 (달러/온스) | 1,566.80 | 1,588.70 | 1,576.60 | 1,548.40 | 1,557.50 | 1,573.20 | -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 | 기초자산 KOSPI200 | 최근월물 1206월물 | 베이스스 | | | 거래량 | 미결제약정 | |
|--------|------------------|----------------|------|-------|-------|---------|---------|--------|
| | | | 이론 | 마감 | 평균 | | 증감 | |
| 5월 22일 | 242.66 | 242.05 | 0.54 | -0.61 | -0.41 | 245,315 | 101,586 | -94 |
| 5월 23일 | 239.76 | 240.15 | 0.51 | 0.39 | -0.41 | 288,351 | 104,140 | 2,554 |
| 5월 24일 | 240.51 | 240.35 | 0.49 | -0.16 | -0.28 | 272,734 | 103,661 | -479 |
| 5월 25일 | 241.60 | 241.20 | 0.47 | -0.40 | -0.31 | 253,088 | 103,710 | 49 |
| 5월 29일 | 245.26 | 245.15 | 0.40 | -0.11 | -0.16 | 250,291 | 102,643 | -1,067 |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 | 외국인 | 개인 | 기관종합 | | | | | |
|--------|---------|--------|--------|-------|--------|-----|--------|-----|
| | | | 증권 | 투신 | 은행 | 보험 | 기금 | |
| 5월 22일 | -887 | -1,822 | 2,238 | 635 | 1,043 | 501 | 50 | 0 |
| 5월 23일 | 1,309 | -1,440 | -321 | -557 | -27 | 87 | 152 | 0 |
| 5월 24일 | -1,535 | 651 | 35 | -4 | 291 | 279 | -483 | 0 |
| 5월 25일 | 1,105 | -102 | -223 | -311 | 438 | -16 | -392 | 0 |
| 5월 29일 | 2,159 | -1,490 | -696 | -970 | 154 | 61 | 61 | 0 |
| 누적포지션 | -15,347 | -4,972 | 18,437 | 4,776 | 16,235 | 197 | -2,671 | -50 |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 | 프로그램 전체 | | | 비차익거래 | | | 차익거래 | | | 차익거래잔고 | |
|--------|---------|-----|------|-------|-----|------|------|-----|------|--------|-------|
| | 매도 | 매수 | 순매수 | 매도 | 매수 | 순매수 | 매도 | 매수 | 순매수 | 매도 | 매수 |
| 5월 22일 | 1,344 | 787 | -558 | 1,009 | 719 | -290 | 335 | 68 | -268 | 7,070 | 7,130 |
| 5월 23일 | 1,075 | 616 | -459 | 848 | 546 | -302 | 226 | 70 | -157 | 7,205 | 7,110 |
| 5월 24일 | 674 | 571 | -103 | 562 | 430 | -132 | 113 | 141 | 28 | 7,221 | 7,153 |
| 5월 25일 | 697 | 496 | -201 | 571 | 434 | -136 | 126 | 61 | -65 | 7,262 | 7,128 |
| 5월 29일 | 680 | 668 | -12 | 629 | 540 | -89 | 51 | 128 | 78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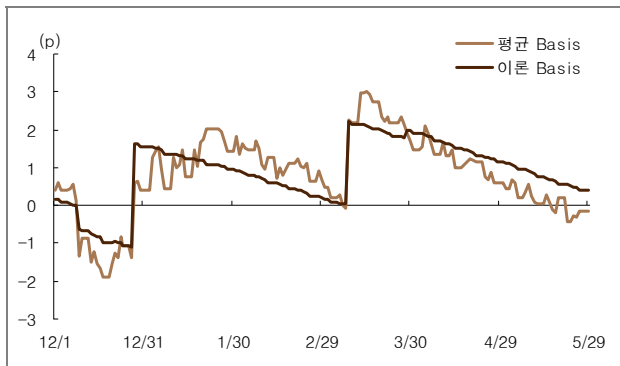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 변동성 | 콜옵션 | | | 행사가격 | 풋옵션 | | | 변동성 |
|-------|---------|-----------|-------|--------|-------|---------|--------|-------|
| | 미결제증감 | 거래량 | 현재가 | | 현재가 | 거래량 | 미결제증감 | |
| 16.82 | 35,611 | 1,419,580 | 0.65 | 255.00 | 10.50 | 1,899 | 91 | 20.60 |
| 17.11 | -5,059 | 1,128,238 | 1.13 | 252.50 | 8.45 | 2,113 | 101 | 20.00 |
| 17.46 | -10,740 | 1,271,231 | 1.84 | 250.00 | 6.65 | 9,317 | 203 | 19.88 |
| 17.48 | -5,465 | 1,180,986 | 2.74 | 247.50 | 5.00 | 19,465 | 697 | 19.45 |
| 18.45 | 853 | 459,823 | 4.10 | 245.00 | 3.80 | 65,911 | 2,873 | 20.08 |
| 18.06 | -3,205 | 111,566 | 5.45 | 242.50 | 2.92 | 111,783 | 6,751 | 21.15 |
| 18.13 | -591 | 75,380 | 7.15 | 240.00 | 2.18 | 322,435 | 4,441 | 21.91 |
| 20.16 | -111 | 14,003 | 9.35 | 237.50 | 1.65 | 445,795 | 11,808 | 22.93 |
| 19.40 | 989 | 5,705 | 11.30 | 235.00 | 1.23 | 617,205 | 8,131 | 23.83 |
| 19.91 | -103 | 964 | 13.55 | 232.50 | 0.99 | 519,155 | 23,893 | 25.39 |
| 18.92 | -149 | 1,383 | 15.80 | 230.00 | 0.72 | 651,759 | 26,318 | 26.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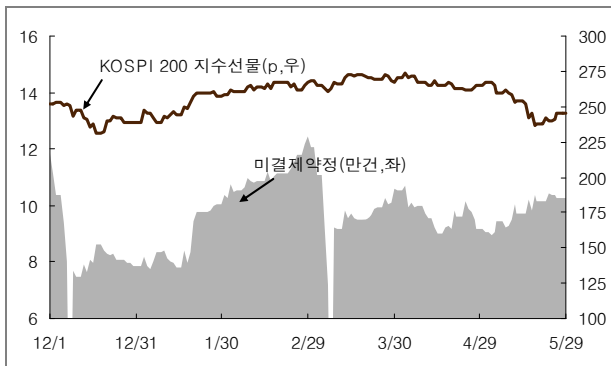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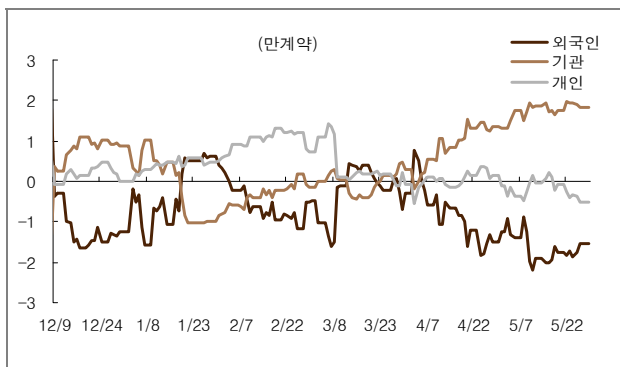
- 평균 Basis: -0.16 (전 거래일 대비 0.15 상승)
- 이론 Basis: 0.40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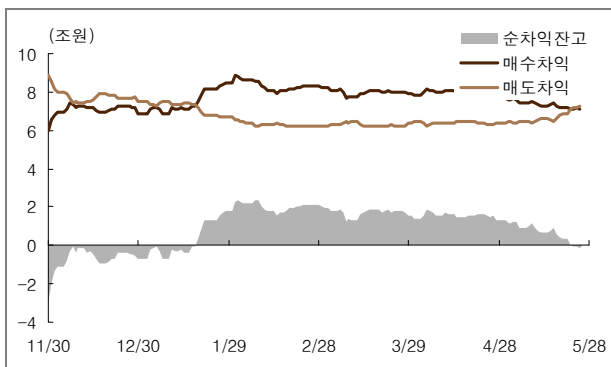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1,067 계약 감소한 102,643 계약
- 선물가격(245.15): 전 거래일 대비 3.95p 상승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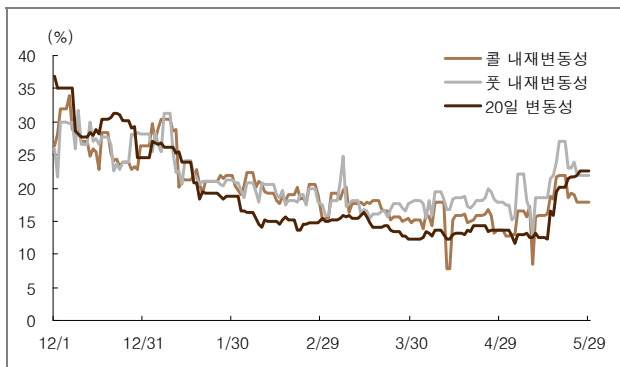
- 외국인: 2,159 계약 순매수
- 기관: 696 계약 순매도 / 개인: 1,490 계약 순매도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777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893 억원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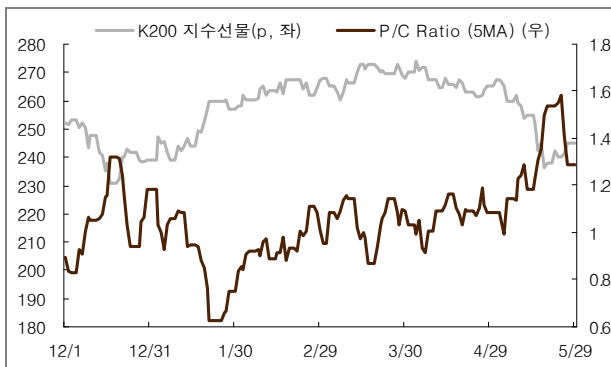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7.9% / 풋 21.9%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22.51%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6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29 기록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 월 | 화 | 수 | 목 | 금 |
|---|--|--|--|---|
| 21 | 22 | 23 | 24 | 25 |
| 美> NATO 회담(5/20-21일) | 美> 4월 기준주택매매 MoM (3.4%, 2.9%, -2.6%) 유럽> 5월 유로권 소비자대지수 (-19.3, -20.5, -19.9) |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3.8%, n/a, 9.2%) 4월 신규주택매매 MoM (3.3%, 2.1%, -7.1%) 3월 주택가격지수 MoM (1.8%, 0.3%, 0.3%) 유럽> 3월 유로권 경상수지 SA (9.1B, n/a, -1.3B) EU 특별 정상회담 日> 4월 수출 YoY (7.9%, 11.8%, 5.9%) 4월 수입 YoY (8.0%, 10.1%, 10.5%) BOJ 정책금리 결정 (0.10%, n/a, 0.10%) |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7.0만, 37.0만, 37.0만) 유럽> 5월 PMI 제조업 (45.0, 46.0, 45.9) 5월 PMI 서비스 (16.5, 46.7, 46.9) 中> 5월 HSBC 플래시 제조업 PMI (48.7, n/a, 49.3) | 韓> 5월 소비자대지수 (105, n/a, 104) 日> 4월 국내 CPI YoY (0.4%, 0.4%, 0.5%) |
| 28 | 29 | 30 | 31 | 1 |
| | 韓> 6월 BSI-제조업 (86, n/a, 90) 6월 BSI-비제조업 (83, n/a, 85) 美> 3월 S&P/케이스샐러 MoM SA (n/a, 0.20%, 0.15%) 5월 소비자대지수 (n/a, 69.5, 69.2) 日> 4월 실업률 (4.6%, 4.5%, 4.5%) 실적발표 韓 한국가스공사 | 韓> 4월 경상수지 (n/a, n/a, \$3,042M) 4월 상품수지 (n/a, n/a, \$3,000M) 美> 4월 미결제주택매매 MoM (n/a, 0.0%, 4.1%)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n/a, n/a, 3.8%) 中> 4월 선행지수 (미확정) (n/a, n/a, 100.52) 실적발표> 韓 오리온, 동국제강 | 韓> 4월 산업생산 YoY (n/a, 0.7%, 0.3%) 美> 1Q GDP QoQ (연간화) (n/a, 1.9%, 2.2%) 5월 ADP 취업자 변동 (n/a, 15.0만, 11.9만) 5월 시카고 구매자협회지수 (n/a, 56.9, 56.2)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7.0만, 37.0만) 유럽> 아일랜드 신재정협약 국민투표 日> 4월 산업생산 YoY (n/a, 13.7%, 14.2%) | 韓>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2.5%, 2.5%) 5월 무역수지 (n/a, \$2,500M, \$2,153M) 5월 수출 YoY (n/a, -1.1%, -4.7%) 5월 수입 YoY (n/a, -2.3%, -0.2%) 美> 5월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변동 (n/a, 15.0만, 11.5만) 5월 실업률 (n/a, 8.1%, 8.1%) 5월 ISM 제조업지수 (n/a, 53.8, 54.8) 4월 건설지출 MoM (n/a, 0.4%, 0.1%) 유럽> 4월 유로권 실업률 (n/a, 11.0%, 10.9%) 中> 5월 PMI 제조업 (n/a, 52.0, 53.3) 5월 HSBC PMI 제조업 (n/a, n/a, 49.3) |
| 4 | 5 | 6 | 7 | 8 |
| 韓> 5월 외환보유액 (미확정) 유럽> 6월 섀넥스 투자자대지수 中> (6/3) 5월 PMI 비제조업 | 美> 5월 ISM 비제조업지수 유럽> 4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中> 5월 HSBC PMI 서비스 |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연준 4월 베이지북 발표 유럽> 1분기 유로권 GDP YoY ECB 금리 공시 | 韓> 1분기 GDP YoY 4월 통화공급 M2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월 소비자 신용지수 유럽> BoE 금리 공시 | 韓> 금통위 금리 결정 美> 4월 무역수지 日> 4월 경상수지 YoY |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이전치는 수정 값 미만영분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